

* 해외연수보고

“UCLA에서...”

안과 임기환 교수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내 온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들려 드리겠습니다.

[7월] 가족 4명이 미국에서 생활 할 집을 가방 8개에 싸들고, 2005년 7월 25일 정오에 LA 공항에 도착 했습니다. 친구 부부의 도움을 받아 맨 하나엔 짐을, 다른 승용차엔 가족들 이 타고, 미리 구해 두었던 아파트에 집만 내려 둔 채, 그날 바로 전화를 신청하고, 은행구좌를 열고, 그렇게 미국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지도교수가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미리 나와 달라는 요청으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8월] 바로 연구에 착수. 첫 번째 연구는 엠알아이로 분석한 선천외안근섬유화증후군, 두안안구후퇴증후군, 선천안구운동신경마비등 사시 환자에서 안구운동신경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9월 말 미국사시, 소아안과학회 초록제출 마감에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 서투른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이미지제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부지런히 준비를 했고 덕분에 이 프로그램에 매우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9월] 줄스타인 연구 워크샵에 참석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2박3일로 근처 휴양지에서 연구관련 워크샵을 따로 하였습니다. 병원이 커서(줄스타인 안과병원은 자체 건물 5층짜리 2개에 안과임상교수가 30여명, 연구교수가 30여명) 임상은 제외하고 연구관련교수, 연구자(연구스텝, 포스트닥, 박사과정, 석사과정생) 등 20여명이 모이는 자체 축제인 쉐어였습니다. 워크샵의 반 정도는 발표를 하고 나머지 반은 해변에서 공놀이, 자전거타기 등의 시간으로 보내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외안근의 안구축과 안와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mm 당 100개씩, 한 안구에-실제로는 눈 주변까지 포함한 안와-3000여장씩 만들어진 조직 슬라이드를 검토하고, 사진을 찍고, 분석하고 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외래] 소아안과 외래에만 진료실이 5개가 있었습니다. 5개의 방이 모두 폴세트의 검사기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각 방에 대기하고 있고, 이 때 미리 전공의나 펠로우가 검사를 하고 교수가 돌아다니며 환자를 봅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여도 환자가 느끼는 편안함은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10월] 아이들의 학교가 쉬는 틈을 타서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방사선과 강병철 교수덕으로 놀러갔습니다. 멀리 해외에 나와 만나니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저녁 6시에 엘에이를 출발해서 새벽 1시 반이 되어 도착했는데, 반갑게 맞아 주시고, 새벽까지 이야기 꽃을 피웠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아안과 집담회] 한 달에 한 번씩 세 병원을 돌아가면서, 공립인

UCLA가 2개의 자병원을 LA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여 소아안과집담회를 같이 합니다. UCLA대학만 소아안과 교수가 4명 이므로, 흥미로운 토론이 많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은 중례가 되는 환자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토론이 진행됩니다. 한국과 매우 다른 분위기여서 흥미로웠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여러 의사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질환을 여러 의사가 토론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외래에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인 교육이 되어서인지, 환자들도 이러한 의사들의 태도를 잘 받아들입니다. 상반되는 이론의 연구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연구기금(국립안과연구소나 국립보건원에서 주는)이 가까이 제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인정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리란 반대되는 설과 같이 발전할 때의 미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란 규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반대되는 학설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안과연구세미나] 매주 금요일 점심에 연구에 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내부 연구자와 때론 외부의 초청 연구자가 강연을 하는데, 가끔은 너무 지엽적인 주제를 발표하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월] 미국 소아안과학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콜로라도의 스키리조트에서 열렸는데, 제가 발표한 연구의 엠알아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구의 내용보다도 엠알아이의 잘 찍은 화상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나름대로 아쉬웠지만 아무튼 대단한 엠알아이라고 칭송을 들었습니다. 1.5테슬라 짜리이니 우리병원 것과 같습니다. 표면조일이라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는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찍는 것입니다. 눈주변의 근육과 신경을 다 구분할 수 있고, 뇌신경까지 구분이 되니 놀라울 수 밖에 없었고 한편으로 매우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병원에도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텍사스의 한 병원과 일본의 한 병원만 이런 영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발표자에게는 항공, 숙박 등 체제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연구만 하면되고, 다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또한 부러워 보였습니다.

[5월] 미국시과학 안과연구학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동영상 클립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구 근육의 바깥층과 안쪽층이 서로 다른 곳에 부착된다는 이론에 관한 것으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동영상으로 조직 절편을 3차원으로 재구성 했으니 이제부터는 논란이 없어지길 기대해 보았습니다.

[6월] 벌써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공동연구프로젝트는 제출이 되었고, 단독 진행한 2개의 연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어쩌나 퇴고를 했는지, 하나의 논문은 17번이나 교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동연구자와 같이 진행하는 것인데, 연구자 모두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 걱정이 됩니다. 2기가 메인 메모리에 워크스테이션으로 하던 일을 한국의 자용량의 컴퓨터에서 교정을 해야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해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만날 동료들을 생각하면 돌아갈 날이 기다려 지기도 합니다.

♣ 의과대학에서 알려드립니다 ♣

○의대소식지 원고 모집
의대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eeje@ewha.ac.kr)

○의대 소식지는 의대 홈페이지 (medicine.ewha.ac.kr) 내 의과대학소식/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동창 주소 변경 문의 (동창회 사무실 T.2650-5782)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살후 3:34)

발행인: 현유섭 편집인: 정성철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강서구 목동 911-1 전화: 02-2650-5707 팩스: 02-2653-8891 제 8 호 <2006. 6>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식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 경쟁률 5.6 대 1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이화의원)이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모집한 2007학년도 이화의원원 수시/특별전형의 인터넷 접수 결과, 총 24명 모집(수시 20명 이내, 특별 4명 이내)에 총 115명이 지원하여 수시 경쟁률이 5.6 대 1로 나타났다.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MEET·DEET 원서접수 마감 후 의·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3.9 대 1의 경쟁률과 비교하여 볼 때, 이화의원원에 대한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07년부터 거듭나는 이화의원원에 대한 지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한운섭 의과대학장은 이번 수시 전형 경쟁률 결과와 관련해 “다른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이화는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5.6 대 1의 경쟁률은 더욱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화의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이화의대가 그래왔듯이 최고의 여성 전문 의료인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시/특별전형 1차 합격자는 오는 7월 26일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medicine.ewha.ac.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이화의원원은 오는 9월 2일 심층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10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 : 이화의원원 입학관리실 (02-2650-5705, 5707)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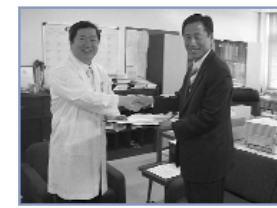
‘200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1.2차에 걸쳐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차 설명회는 지난 4월 27일 의과대학 B동 814호 대회의실에서, 2차는 5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렸으며, 2007학년도 모집요강 안내와 함께 학생 생활, 졸업 후 진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1차 입학설명회 평가를 바탕으로 2차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입학담당교수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졸업 후 진로 안내’를 통해 졸업 후 여성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이화만의 혜택, 다양한 진로 소개, 이화의의료 발전 계획, 이화의대 선배 경험담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많은 학생들은 “직접 와서 듣고 보니 이화의학전문대학원만의 장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남기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통합) 개발 워크샵 개최

교육과정 (통합) 개발 워크샵이 전 학년 통합 과목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와 통합과목 책임 교수, 각 부 디렉터, 간사 및 각 교실 주임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6일 의과대학 B동 814호에서 개최되었다. 1-4학년 통합교육과정 개발 중간발표가 진행되었으며, 1학년은 박혜영 교수 (기초의학위원회 위원장), 2학년은 홍기숙 교수 (기초-임상 통합위원회 위원장), 3,4학년은 임원정 교수 (임상의학위원회 간사)가 발표하였다. 이어 인제대 이병두 교수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강이 이어진 후 현재 개발 중인 “사람의 구조와 기능” 통합과정을 이희희 교수가, “알레르기 및 류마티스” 통합과정은 내과학교실 이지수 교수가 발표하였다.

*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소식



▲ 신한은행 약정식모습

이화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까지 약정된 금액은 총 799,738,050원입니다. 2006년 4월에서 6월까지의 신한은행에서 30,000,000원을 약정하였으며, 안정자 교수가 총 20,000,000원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0,000,000원, 이화사랑장학금 10,000,000원)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을 비롯한 동창님, 학부모님 및 이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 향후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약정 문의 : 행정실 이희정, 2650-5707

(2006년 4~6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약정 현황)

후원자	금 액
신한은행	30,000,000원
안정자교수	10,000,000원
계	40,000,000원
총 누적계	799,738,050원

또한, 의과대학에서는 기독 여성 의료인 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이화의대 선교 후원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후원 기금은 의과대학 B동 712호에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 마련·의과대학 재정을 위한 김옥길홀 그랜드 피아노 구입·이화봉사단 우즈베키스탄 선교 후원·의과대학 홈페이지 말씀코너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화의대의 기독 정신을 실현하는 데에 더욱 의미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 의과과학연구소 소식

◆Confocal Microscope 설명회 개최

Confocal Microscope 원리 및 operate에 관한 설명회가 총 3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1차 설명회는 지난 5월 3일, 2차 설명회는 5월 18일, 3차 설명회는 6월 16일에 모두 의학관 A동 211호에서 개최되었다. 설명회 후 의학관 512호에서 Confocal Microscope 실습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 Confocal Microscope 담당자 (고승석)가 5월 1일자로 의과과학연구소로 발령받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위원소실 과학기술부 정기검사 마쳐

의과과학연구소 동위원소실이 지난 5월 30일 과학기술부 정기검사를 마쳤으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과대학 새소식

1. 의과대학 소식

○이화의학,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과 교류 협정 맺어



이화의학이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의과대학 (The Urganch Branch of Tashkent Medical Academy) Dr. Duschonov B. A. 총장을 방문 초청하여 교류 협정을 맺는 등 우즈베키스탄

과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진행하였다. 6월 5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관 A동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 '교류 협정 조인식'에서 합의된 협정은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과 매년 시행되는 이화봉사단 (EMC: Ewha Medical Care)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월 7일에는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Dr. Duschonov B. A. 총장이 'Medical Education and System in Uzbekistan'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으며, 많은 학생들이 특강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의학 교육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한편 이번 방문 초청은 지난 2월 이화의학 교수, 학생, 전임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화봉사단이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지역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가진 것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6년 의과대학 신입교수 워크숍 개최



2004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발령받은 신입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 의학관 B동 814호에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권복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사회를 주도하는 이화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한운섭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참석자 소개 후 '이화대의 교육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순남 교수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화의학의 역사와 이화여대 교육목표의 변천, 이화의학의 교육목표, 의과대학의 국내외 인정평가, 이화의학의학과 교육과정 변천, 최근

의학교육경향, 이화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순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효과적인 강의법'이라는 주제로 권복규 교수가 효과적인 강의 방법, 좋은 강의와 나쁜 강의, 강의의 목적, 체계적인 강의 설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PBL 소위원회 간사인 이지수 교수가 PBL을 소개하고, 유경하 교수 (OSCE 위원장)와 한재진 교수 (CPX 위원장)가 각각 OSCE와 CPX를 소개하였다. 이어 민석기 교수는 임상실기 수첩의 활용 및 평가에 대해, 양현중 교수는 학생지도와 상담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은희 교수의 업적 평가 소개를 끝으로 신입교수 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2006년 제 1차 OSCE station 개발 워크숍 개최

2006년 OSCE 문항 출제위원 교수 36명과 OSCE 준비위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2006년 제 1차 OSCE station 개발 워크숍이 6월 8일 의학관 B동 81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경하 교수가 2006년도 OSCE Time Schedule와 문항개발 위원을 소개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 OSCE 문항 분석 결과를 박혜숙 교수가 설명하였다. 이어 모형 구비 현황 및 이용 문제 사례를 오지영 교수가, OSCE 문항 출제 요령 및 체크 리스트 개발을 허정원 교수가, OSCE station 및 표준화 환자 소개를 어은경 교수가, PPL (Patient Physician Interaction) 소개를 권복규 교수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2차 문항개발 및 station 확정 워크숍 일정을 김한수 교수가 소개하며 마무리되었다.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 열려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이 6월 19일 의학관 A동 109호에서 열렸다. 김병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우경희 학생 (의학과 1학년)이었으며, 이날 수여식에는 김병순 수여자를 비롯해 학장 및 학생 부장, 학생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

었다. 김병순 수여자는 의대와 법대에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의과대학은 매년 25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2 교수 · 직원 및 의료원 동정

1) 교수 · 직원 동정

○유경하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유경하 교수 (소아과)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6-2007년 Medicine and Healthcare판에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되었다. 유경하 교수의 인명사전 등재는 '성체줄기세포의 장기재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성과를 인정 받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환 교수, '우수 연구 논문상' 수상



임기환 교수 (소아안과) 일 미국 캘리포니아 Jules Stein Eye Institute의 graduation ceremony에서 '우수 연구 논문상' (Laboratory Research Award)을 수상하였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선천 사시에서 눈 움직임 신경과 뇌 이상" (Abnormalities of the Oculomotor Nerve and Brainstem in Congenital Fibrosis of the Extraocular Muscles and

Congenital Oculomotor Palsy)이며 현재 임기환 교수는 Jules Stein Eye Institute에서 연수 중에 있다.

○교수의 자기관리' 워크숍 개최

5월 18일 의학관 B동 814호에서 '교수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La Verre 대학의 이윤주 (M.D, Ph.D) 교수를 초청하여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4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The Future of e-Learning in Medical Education' 특강 개최

의과대학에서 Sara Kim 교수 (Univ. of Washington 의학교육전공)를 초청하여 6월 2일 의학관 B동 814호에서 전체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Current Trends & Future Opportunity in Medical Education"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하였다.

○석진호 직원, 에세이집 출간



석진호 직원 (시청각실)이 도보로 안양천을 출퇴근하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집 '만보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출간했다. '운동화를 신고 새벽의 여명 속으로 뛰어나가면서 나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었다'는 독일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의 <나는 달린다>를 연상시키는 건기 예찬문이다.

2) 의료원 동정

○동대문병원, 전국의료기관 평가 최상위 4대병원 선정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 이대동대문병원이 평가 대상 병원 중 최상위 점수를 받아 4대 병원에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 발표한 2005년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병원은 진료체계, 감염관리, 병동, 질향상 관리, 외래, 수술관리 체계, 모성과신생아 등 총 18개의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5개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아 전체 4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대상 중 대형 병원의 경우 평가 당시 신축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 2004년 의료기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형병원이 포함되었는데, 이 병원들을 제외하면 이대동대문병원이 실질적으로 최고의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프로 풋볼리그 MVP 하인스 위드 동대문병원 방문



미국 프로 풋볼리그 MVP 하인스 위드가 한국인으로서는 뿌리를 찾기 위해 4월 6일 자신이 태어난 서울 종로구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동대문병원을 방문한 하인스 위드와 어머니 김영희씨는 동대문병원장 접견실에서 윤건일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규월 이대동대문병원장, 유한기 전 산부인과 교수 등과 함께 30여년 전 하인즈 위드 분만당시 상황과 에피소드 등으로 답소를 나눴다.

접견실에서 연규월 병원장은 하인즈 위드 선수에게 출생증서와 출생당시 아기발모양이 찍힌 기록물을 전달했으며 하인즈 위드 선수는 자신의 등번호가 쓰여진 유니폼과 친필사진이 들어간 기념물을 병원측에 기증했다.

하인즈 위드 선수는 병원을 떠나기 전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내 삶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고 자신과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준 이곳에 감사한다.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대창립 120주년 기념 이화의료원 역사사진전 개최

이대창립 120주년을 맞아 이화의료원 역사사진전이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대목동병원과 이대동대문병원 양병원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120년 전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보구여관의 모습부터 초기 학생들의 사진과 이화의료원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꾸며진 이번 사진전에 환자과 보호자 등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모았다.

* 동창회 소식

◆의과대학동창회 제40차 정기총회 성황리에 마쳐



의대동창회는 5월 23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박귀원 여의사회장 및 권본이 초대동창회장과 윤건일 의료원장, 한운섭 학장, 연규월 동대문병원장 등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김화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대창립 60주년 기념의 밤 행사 및 장학금 모금사업, 이화의학 동창회 홈페이지 활성화 등에 힘써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올해는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가을야유회(역사탐방)를 준비중이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술지원회 연구비는 우소연 (이화의학 미생물학) 교수가, 학술연구회 연구비는 권이경 (인제대 일산백병원 감염내과 전임강사) 동문이 각각 수상하였다.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안양지회를 비롯하여 25회 동기회 (회장 김경배 서울위생병원 마취과장)가 6300만원 · 김석희 원장 (16회 김석희산부인과)이 2000만원 · 윤석환 (25회 성완산부인과) 원장이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상에는 의료발전에 기여한 윤석환 원장이 수상하였다. 윤원장은 이화여고(70년), 이화의학(76년)을 나와 이화의학대 부속병원에서 산부인과 수련 후, 83년부터 성완산부인과를 운영하며 △동대문구 의사사회 부회장 △서울시 의사사회 대의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사회 사업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의사사회 감사를 맡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창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발전기금 모금 활동 추진 (10년 회비 납부운동) △장학기금 모금 △학술 활동 및 지회활성화 △사회기증운동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등 신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1억2천3백만원을 인준했다.

◆김화숙 회장,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 협의회 초대회장 맡아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 협의회가 지난 5월 16일 창립되어 김화숙 회장이 초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 협의회는 보건 및 의료분야 관련단체들이 모여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창립하는 조직,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회장은 "보건 및 의료관련단체들의 고급인력이 모여 결성하는 단체인 만큼 상호보완적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며 "각 단체와 병원이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결연하는 1사(단체나 병원) 1복지시설(농어촌 포함)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전국 농어촌의 고령마을을 돌고 결연하고 공동봉사에 나서는 한편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국민건강 증진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